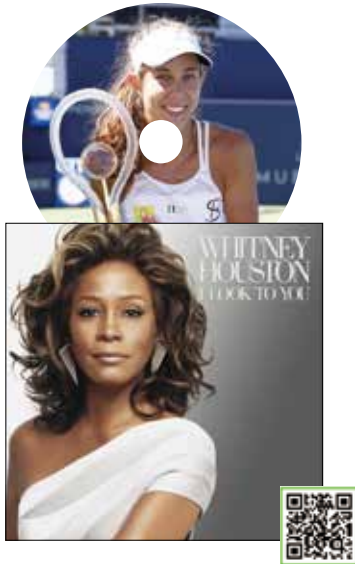


## 9월의 주크박스

매달 테니스계의 화제의 인물을 모아 그들에게 어울리는 노래를 추천하는 주크박스 코너!  
이번 달에는 과연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어떤 선수의 희로애락을 함께 음악으로 풀어낼지 편안히 함께 즐겨보자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노래의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글\_ 전채향 객원기자



미하엘라 부자르네스쿠(루마니아)

추천곡 : Whitney Houston의  
《I Didn't Know My Own Strength》

세계 주니어 4위까지 올랐던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던 부자르네스쿠. 하지만 프로 데뷔 후 어깨 부상으로 수술 후 150위권에 올랐지만 두 차례의 무릎 수술이 이어지는 불운 속에 선수 생활을 포기할 뻔했다. 은퇴 후 삶을 고민하며 대학원에 진학해 스포츠 심리학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지난해 29살의 나이로 처음 그랜드슬램 본선 무대를 밟았고 지난달 무바달라실리콘밸리 생애 첫 투어 대회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온다는 교훈을 주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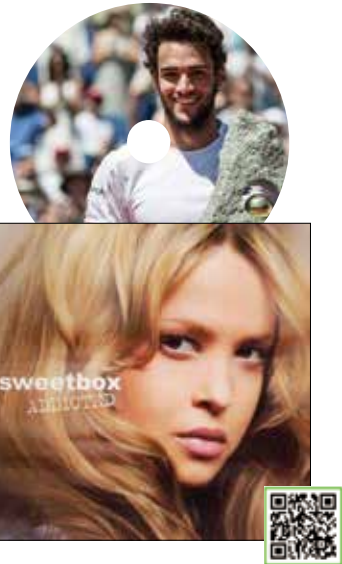
〈가사〉더 이상 기댈 곳도 나아갈 힘도 없었어. 이것이 나의 끝이라고 생각했어. 이 고통을 이겨낼 자신이 없어 무너져버릴 것 같았어. 하지만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힘이 있었어. 나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견뎌냈어. 놓지 않았던 희망이 나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어.

니콜로즈 바실라쉬빌리(조지아)

추천곡 : Bryan Adams의 《On A Day Like Today》

예선 결승 마지막 세트에서 3-5으로 끌려가며 패색이 짙던 그 선수가 일주일 후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다면 그야말로 극적인 해피엔딩이 아닐까. 올해 26살의 바실라쉬빌리는 이 꿈같은 이야기를 현실로 만든 주인공이다. 그동안 준우승만 두 차례 한 그는 함부르크오픈 정상에 오르며 조지아 출신 최초로 투어 타이틀을 우승한 선수로 기록되었다. 세계랭킹 또한 81위에서 35위로 수직상승하며 조지아 선수 최고 세계랭킹도 경신했다. 그의 일취월장한 성장에 박수를 보낸다.

〈가사〉부담을 떨치고 자유로워지면 돼. 아무도 볼 수 없는 꿈을 키워봐. 가끔은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이 순간을 지나면 어떤 선물이 너에게 다가올지는 모르는 일이니 기다려봐. 오늘 같은 날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이야. 밝은 햇살이 기다려온 너에게 쏟아져 내릴 것이야.



마테오 베레티니(이탈리아)

추천곡 : Sweetbox의 《Life Is Cool》

이탈리아의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 22살의 나이로 스위스오픈에서 자신의 첫 투어 단식 및 복식 타이틀을 한꺼번에 거머쥔 베레티니! 그는 올해 프랑스오픈 3회전에 올랐고 뎀블던에서는 잭 삭(미국)을 물리치며 처음으로 톱20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등 테니스 팬들의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다. 불과 1년 전 NextGen 파이널의 와일드카드 자리를 아쉽게 놓쳤던 그가 오히려 성인 무대에서 펄펄 날며 당시의 아픔을 깔끔하게 씻어낸 느낌이다.

〈가사〉나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 하지만 부정적으로 살기엔 인생이 너무 바쁘잖아.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늘 집중하고 있어. 우린 늘 불평을 늘어놓지만 나보다 최악인 사람도 많다는 것만 기억해. 내 삶은 정말 멋져.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기만 하면 돼. 인생은 멋진 것이야!